아무리 망해도 여전히 차선(次善)

(이사야 51:1~23)

1.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2.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3.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4.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아무리 망해도 여전히 차선(次善)>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아무리 망해도 여전히 차선(次善)'
엄청나게 실패하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느껴질 때에 인생이 완전히 망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최선은 아니더라도 여전히 차선은 됩니다. 1등급은 못 되어도 2등급은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등급을 매긴다면 몇 등급까지 있을까요? 저의 판단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성경 말씀에 근거하자면 다섯 등급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논리적이라는 말이 일반학문에서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신앙에서도 논리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감정이나 편견 같은 것들을 깨뜨리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게 해주는 객관적이고 가치중립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논리에 입각해서 이야기하자면 인류의 삶 전체를 다섯 등급으로 나누어 얘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한 일화를 통해 최선과 차선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풍요와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오니소스를 양육하고 가르친 스승인 실레노스라는 숲의 요정이 있었습니다. 이 실레노스는 늘 술에 취해서 온 동네를 헤집고 다니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농부들이 이 요정을 붙잡아서 미다스 왕에게

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미다스는 이 실레노스가 디오니소스 신의 스승임을 알고 열흘 밤낮으로 잔치를 벌여서 환대합니다. 이후에 이 소식을 듣게 된 디오니소스는 미다스를 찾아와 스승을 환대한 것에 대해 고마워하며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노라 합니다. 그러자 미다스는 손대는 것마다 황금이 되게 해달라고 빌었고 여기서 그 유명한 '마이더스의 손'이라는 말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일화 중에서 전해오는 미다스 왕과 실레노스의 이야기가 흥미롭습니다. 미다스 왕이 실레노스에게 "인간에게 최상이고 최선의 것이 무엇이겠는가?"라고 물었더니 실레노스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최선이고 태어났으면 되도록 일찍 죽는 것이 차선이며 최악은 오래 살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제법 현자 같기도 하고 철학적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부분이 무척 실망스럽습니다. 실레노스는 "온갖 세파에 시달리는 저 노인을 보라. 오래 살면 칭찬도 사랑도 친구도 멀어지고 남는 것은 고생뿐이며, 그것의 구원자는 죽음뿐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노인이 뭐 어때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한답니까?

그런데 쇼펜하우어나 니체 같은 철학자들이 이게 무슨 대단한 이야기라고 언급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최상의 인간인 초인(超人, Übermensch)은 디오니소스적 정념(pathos)을 가진 자입니다. 정돈되고 질서 잡힌 아폴론적 이성(ethos)을 지닌 자보다는 디오니소스처럼 충동적이나 주체적 감성을 가진 자를 이상적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성향으로 실레노스의 이야기를 인용하곤 했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생각자체가 대단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차선은 셀레노스가 생각했던 차선과는 전혀 다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이 차선은 영어로는 'The second best in bad situation'으로써 나쁜 상황에서는 최고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나쁜 상황 속에서 만들어지는 두 번째의 최선이 차선입니다. 그리고 이 차선이 언급되는 이유가 오늘 본문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바벨론은 남 유다를 멸망시키고 선민들을 포로로 잡아갈 것입니다.

이 예언을 배경으로 삼고 당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라는 훈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민들은 깨닫지 못한 채 바벨론에 의해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인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마음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 왕국 유다는 므낫세 왕을 비롯한 악한 왕들의 영적 횡포에 의해서 우상숭배에 물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수하기 위해서 애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람들을 의인으로 일컫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에 걸립니다.

이들에게도 자신을 비롯한 선민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괴로움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가중되는 괴로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민을 통해 이루시고자 했던 계획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북 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기 때문에 이제 남은 선민의 나라는 남 왕국 유다뿐이었습니다. 눈앞에서 참혹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과 함께 이러한 의문으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이들은 만연하는 우상숭배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들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의 존재의미를 끝까지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은 더욱 뼈에 사무쳤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 예언이 계속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택하셨음을 상기시키십니다. 그 내용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선민이 시작되었으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관계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도적으로'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행실을 보시고 쓸 만하고 가치 있다고 여기셔서 선택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그를 선택하셨고 계획대로 그에게로 찾아오셨습니다. 따라서 유다 사람들이 선민이 된 것도 하나님의 자발적인 은총일 따름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도적 관계는 선민의 잘잘못에 의해 없어지거나 중단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선민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도적으로 멈출 권한이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 여호와를 버리지 않았던 자들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조차도 나쁜 것이 아니며 최선은 못 되지만 차선은 된다는 것입니다. 최고는 선민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선민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고 하나님께서는 차선책을 허락하셨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상황에서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래서 남 유다의 멸망조차도 최악이 아닌 차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막연한 희망을 심어주는 위로를 위한 위로가 아닙니다. 포로로 잡혀간 참혹한 사건 속에 실질적인 위로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삶에서 실패를 겪습니다. 그것은 선민들이 바벨론에 잡혀가는 참혹한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는 단순한 실패가 아닙니다. 그 실패 속에는 이미 하나님이 넣어두신 위로가 될 사항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모든 인류의 삶 전체는 다섯 등급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선민들은 차선이라는 등급에 속해 있습니다. 이 차선은 나쁜 상황에서는 최선이 되는 등급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완전히 끝나버린 것 같아도 여전히 최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마음을 놓고 이 세상과 하나님이 경쟁중이십니다. 마음은 오직 하나의 대상과 밀착을 이룹니다. 이때에 하나님과 밀착하는 것이 좋은 상황이고, 하나님과 밀착

하지 못한 상태가 나쁜 상황입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밀착을 기준으로 성경에 근거하여 논리적으로 등급을 나누어봅니다. '밀착'이라는 말은 어제 비로소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앞서 본 29장 1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라고 하였습니다.
1등급이라고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은 선민의 마음이 하나님과 완벽한 밀착상태를 이루었을 때입니다. 마음에서 하나님만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의 삶은 하나님께서 나를 장갑삼아 살아가시게 됩니다. 어제 말씀에서 보았듯이 학자의 혀를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말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뜻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탁월한 영성의 소유자들에게만 주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밀착시킬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격을 장갑삼아서 이 세상의 삶을 주도해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만 기쁨과 만족과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서는 이런 최상급의 삶을 두고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밀착은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번제단의 번제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지금 우리의 시대에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밀착이 이루어집니다. 세상과 밀착한 나를 끊임없이 죽이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2~5등급까지는 'The second best in bad situation'이라는 영어의 설명과 마찬가지로 나쁜 상황에서의 등급들이 됩니다. 하나님과 밀착하지 못한 상태의 등급이 네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2등급의 삶은 선민이고 교인이면서 입으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마음은 하나님과 밀착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마음은 여전히 세상과 밀착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선민들의 마음이 세상과 밀착한 상태로 방치하거나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선민이라면 내 마음이 다른 것에 밀착하도록 절대로 내버려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밀착을 방해하는 사랑의 대상이나 그 대상에 밀착한 상태로 사는 태도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가하십니다. 일이 안 풀리고 몸에 병이 들거나 집안에 문제가 많다면 이것은 단순히 세상적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의 전문가들은 세상적인 이유를 얘기하고 상담자들은 심리적인 이유를 찾으려 하겠지만, 그 근원을 따져보면 하나님께서 막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밀착되기를 바라시는데 실제로는 세상과 밀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무슨 수로 일이 잘 될 수 있겠습니까?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이 이와 같습니다. 나쁜 상황을 자처했기

에 최선은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아직 차선에는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나쁜 상태에서 최선은 내가 마음을 향하고 있는 세상의 일들이 안 풀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독하게 망한 것 같아도 아직도 차선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동료 교인들을 볼 때에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성실하고 선하게 사는 것 같은데 삶에서 곤란을 겪는 분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을 마냥 딱하게 여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분들은 그래도 2등급의 삶을 살아가시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3등급부터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며 교인도 아니고 선민도 아닌 자들입니다. 마음을 자연스럽게 세상에 밀착시키고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밀착한 세상일들이 뜻대로 풀리지를 않습니다. 일이 안 풀린다는 점에서는 2등급과 차이가 없지만, 2등급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3등급은 하나님과 주님을 믿지 않고 그 이름도 부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작용합니다. 참새 한 마리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지만 여전히 귀중한 존재로 여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일을 막으시는 이유는 이들을 여전히 부르고 계시는 확률이 아주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처한 자들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고 계신다고 보면 백발백중입니다. 이 세상에는 잘 풀리는 사람보다 안 풀리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통하여 만민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세상에 대한 실패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직은 세상에 속해 있으나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 마음을 주는 일들이 막혀있는 것이 3등급입니다.

4등급은 3등급의 삶을 사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이름도 예수님의 이름도 부르지 않습니다.
마음을 세상에 밀착시킨 것은 3등급과 같으나 소원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잘 풀리는 자들입니다. 세상과의 밀착은 인간에게 있어서 보편적이고 우선적으로 가장 악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담도록 지음 받은 인간이 그 마음을 하나님과 밀착시키는 것이 아니라, 피조세계의 피조물과 밀착하였다는 것은 인간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악한 상황입니다. 악한 상황에서 꿈꾸고 계획하고 소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돌이킬 가능성이 거의 없는 불행한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이것이 4등급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에서 한 부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부자는 곳간을 넓히고 핑크빛 미래를 전망하고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에 그를 돌연사하게 하셨습니다. 부자가 상징하는 것은 비단 돈을 많이 번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자를 비유로 삼으신 것은 사람들이 마음에 밀착시키고자 하는 가장 대표적인 대상이 재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상은 건강도 명예도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등진 채로 마음에

담은 일이 잘 되고 있으니 그만큼 돌아올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강력하게 일을 막고 계신 3등급의 사람이라면 아직은 하나님을 모를지라도 하나님을 전도 받는 순간 돌이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5등급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밀착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며 또는 알고도 받아들이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마음 어느 구석에도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하는 일마다 잘 되기에 하나님을 우상시합니다. 이것이 바로 최악의 상황인 5등급입니다.
이것이 4등급보다 더 절망적인 이유는 돌이킬 가능성이 너무나도 적기 때문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잘되기만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순간마다 굴곡이 찾아옵니다. 비록 4등급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의 여지가 적기는 하지만 그 굴곡을 맞이했을 때에 3등급의 사람들처럼 다행히도 하나님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다소나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세상에 마음을 밀착시켰으며 심지어 하는 일이 잘 되는 5등급의 사람에게는 구원이 너무도 힘듭니다. 사람은 자신이 계획한 대로 일이 풀려나갈 때에 자신이 옳다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요새 사회적으로 갑질이 문제인데 갑질이 이루어지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옳으니 타인은 무조건 틀렸다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납니다. 큰 교회의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더 진리에 가까운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형교회의 목사님과 군소교회의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일방적으로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주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신앙의 정체성은 결코 그러한 것일 수 없습니다.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한다고 해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반드시 진리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이것이 합당합니다. 어디까지나 돈 많이 벌고 성공했다 여겨지는 사람의 말이 진리로써 받아들여집니다.
이처럼 세상 일이 잘 풀리면 절대적으로 자신을 옳게 여기게 됩니다. 이는 4등급이나 5등급에서 모두 일어나는 일이지만 4등급의 사람은 그나마 이것이 죄임을 깨달을 수 있는 희박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5등급의 입으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세상 일이 잘 풀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고 계시는 것이 삶의 증거로 나타난다고 여깁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마음이 하나님과 밀착되지 않으면 당신은 여전히 죄인입니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깨우치게 하는 것은, 당나귀나 노새에게 수학의 미적분을 깨우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낙타를 바늘구멍에 들어가게 하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계획하는 세상일을 계속해서 잘 되게 하신다면 그가 선민이 아니기 때

문입니다. 교회에 와서 앉아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지라도 실제로는 선민이 아닌 것입니다. 선민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과 마음이 밀착되기를 바라시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선민의 마음이 세상과 밀착되어 있다면 그대로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서 세상일이 원하는 대로 잘 풀리고 있다면 그것이 부디 일시적인 것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계속 잘 되어서 끝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보통 큰 일이 아닙니다. 나쁜 상황에 속한 네 가지 등급 중에서도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등급은 삶에서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삶의 굴곡을 따라 변화해갈 것입니다. 다만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을 논리적으로 신앙을 다섯 등급으로 나누어 해석한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우리는 굳이 아래 등급의 삶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2등급에 속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일을 막고 계신다면 얼른 깨닫고 1등급의 삶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마음이 하나님과 밀착되면 광야와 사막처럼 되었던 삶도 에덴과 여호와의 동산으로 바뀔 것입니다.
1등급으로 가는 길이 어렵거나 대단한 행동이 필요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세상에 밀착된 마음을 죽이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을 담으면 되고 세상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주도해나가실 것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 여자나 남자,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라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세상을 담은 마음을 죽은 것으로 인정하기를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나 하나님과 마음이 밀착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막과 광야 같았던 삶을 에덴과 여호와의 동산 같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1등급의 삶을 마다하고 2등급 아래의 삶을 살아갈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과 밀착되지 않은 마음을 죽은 것으로 인정하는 삶을 생활화해서 1등급의 삶을 살게 하여주시옵소서. 온갖 어려운 일을 마다하지 않고 살았던 인생에 이제 가장 쉬운 십자가 생활화라는 길을 제시해주셨으니 남은 삶을 1등급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